

“미군의 인삼 복용?": 20세기 말 인삼의 미국 식이보충제 시장 편입과 미군 매뉴얼

“The U.S. military uses ginseng?": The official entrance of ginseng to the U.S. dietary supplement market and the U. S. military's dietary supplement manual in the late 20th century

*석영달

Seok, Yeong-dal

초 록

이 논문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미국삼이 19세기 서구 약전에서 퇴출된 이후, 20세기에 수출 상품으로서 위기를 겪고, 결국은 '식이보충제'로서 미국 사회와 군대 내에 정착하게 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이 과정 속에서 먼저 1994년의 <식이보충제 건강 및 교육법>이라는 법령의 제정은 인삼을 비롯한 식물성 식이보충제들이 미국의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해줬고, 그 결과 인삼은 과거 약전에서의 퇴출 이후 '식이보충제'로서 <미국 약전 및 국민 처방집>에 다시 등재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인삼과 기타 식물성 식이보충제들의 완전한 연착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식물성 식이보충제들의 무차별적인 확산을 경계한 미국의 의학계에서는 끊임없이 '위험 담론'을 제기 하면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식이보충제 활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것은 <식이보충제 건강 및 교육법>의 느슨한 검증 제도로 인한 근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중들이 전문 의료인들을 찾기보다는 직접 식물성 식이보충제에 대한 정보를 얻어 그것을 통해 본인의 건강을 돌보고자 하는 새로운 분위기와도 관계되어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옹호 담론'을 펼치는 식이보충제 제조업자 및 식물 약재 관계자들의 주장은 다소 여유로워 보였다. 소비자들이 '옹호 담론'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옹호론자들은 식물성 식이보충제들이 오랜 세월 아무런 문제없이 세계적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천연의' 원료로 만들어졌다는 점만 강조하면 되었기 때문이다. 인삼을 비롯한 식물성 식이보충제들이 사회 내의 담론 충돌 속에서도 식품 통제에 엄격한 미군의 식이보충제 매뉴얼에까지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 내의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한 것으로 보인다. 본문에서 살펴본 미군의 초창기 식이보충제 매뉴얼에서 인삼은 여러 식물성 식이보충제 가운데 가장 자세하게 다뤄지고 있었다. 물론 그 속에는 사회 내에 존재하는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다소 섞여있었지만, 효능에 대한 충실한 과학적인 설명이나 인삼의 미국 사회 내 성행과 영향력에 대한 언급도 분명히 함께 이뤄지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식이보충제로서의 인삼'에 대한 미국 사회의, 그리고 미국 군 내부의 관심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인삼, 미국삼, 식이 보충제, 식물성 식이보충제, 1994년 식이 보충제 건강 및 교육법, 미군 식이보충제 매뉴얼

Abstract

This study aims to look at the process of ginseng being removed from the Western pharmacopoeia in the 19th century, experiencing a crisis as an export product in the America in the 20th century, and eventually settling in the U.S. society and the military as a dietary supplement in the 21st century. In this process, the legislation of <Dietary Supplement Health and Education Act of 1994> provided a bridgehead for ginseng and other botanical dietary supplements to enter the U.S. market. As a result, ginseng could be re-listed in the U.S. pharmacopoeia as a dietary supplement. However,

this did not mean a complete soft landing of ginseng and other botanical dietary supplements in the America. The U.S. medical community, which has been afraid of the indiscriminate spread of botanical dietary supplements, has constantly raised “the risk-discourse” and expressed concerns over the use and abuse of botanical dietary supplements that have not been scientifically verified. This involved not only the fundamental problems caused by the lax verification process of <Dietary Supplement Health and Education Act of 1994>, but also a new atmosphere in the U.S. where the public sought information about botanical dietary supplements rather than seeking professional clinicians related to their health. Against this situation, “the advocate-discourse” suggested by dietary supplement manufacturers and the people in charge of botanical products seemed rather relaxed. As consumers are taking this side, the advocates had only to stress that botanical dietary supplements have been used worldwide for a long time without any problems and were made from ‘natural’ materials. The fact that ginseng and other botanical dietary supplements were able to advance to the U.S. Military’s dietary supplement manual, which is strict in controlling food, seems to have jumped on the bandwagon of this atmosphere in the U.S. Society. In the early U.S. dietary supplement manual reviewed in this paper, ginseng was the most detailed among many botanical dietary supplements. Although there are some ‘safety concerns’ that still exist in the civilian society, but there are also certainly good scientific explanations for the efficacy and references to the popularity and influence of ginseng in the American society. Given this, the U.S. society and military’s interest in ginseng as a dietary supplement seem quite high.

Keywords: Ginseng, American ginseng, dietary supplement, botanical dietary supplement, Dietary Supplement Health and Education Act of 1994, the U.S. military’s dietary supplement manual.

I. 서론

한국인으로서 미국 본토와 미국령 기타 영토들을 여행할 때마다 겪게 되는 흥미로운 경험은 미국의 어느 관광지에서나 ‘인삼’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인삼들은 한국산 인삼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미국·캐나다·중국 등 다양한 산지에서 생산된 인삼이 진열되어 있다. 이런 사례들을 경험할 때마다 인삼이라는 약재가 동아시아 일부 국가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성’을 띠고 있는 상품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을 수 있다.¹⁾ 그런데 2017년에 국내에서 발표된 한 논문은 이러한 현상과는 상반된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그것은 인삼이 19세기에 미국 내에서 ‘약재’로서 퇴출될 위기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2017년 발표된 설혜심의 「서양의학에서의 인삼활용과 한계, 1660-1900: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은 17세기부터 영미권의 의사들이 인삼을 그들의 의학에 접목시켜 활용한 사례들과 그 속에 존재했던 의학담론을 다

루는 동시에, 18세기 이후 인삼의 효능을 폄하하고 서구 약전에서 퇴출시키게 된 배경과 그 움직임에 대해 다루고 있다.²⁾ 설혜심은 이 논문의 <4장 약전에서 퇴출된 인삼?>에서 인삼의 퇴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인삼은 근대 초 영미 의료영역에서 이미 친숙한 약재이자 처방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인삼의 활용은 더 활성화되기보다는 다른 수입 약재들에 비해 그 입지가 위축되어갔다. 뿐만 아니라 인삼은 동양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강화되면서 오늘날 서구 의학사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문화적 차원과 의학의 영역에서 공히 인삼을 경원시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이다.³⁾

그렇다면 이렇게 서구 의학계에서 퇴출된 인삼은 어떻게 현재까지 미국에서 하나의 상품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일까? 미국의 의학계 내에서 인삼의 효능에 대해 의문을 갖고, 또 경원시 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그런 시각을 어떻게 뒤집고 미국 내에서 계속 소비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일까? 필자는 이런 의문에서 출발하여 미국의 인삼 수

¹⁾ 인삼은 파낙스(Panax)속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로 고려인삼(*Panax ginseng*)과 화기삼(花旗蔘, *Panax quinquefolius*)이 대표 종으로 알려져 있다. 화기삼은 북미대륙에 자생하는 삼으로 광동삼 아메리카삼 서양삼 양삼(洋蔘) 포삼(泡蔘) 등으로도 불린다. 이 글에서 지칭하는 인삼은 ‘고려 인삼’이라고 지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화기삼이다. 설혜심, 「인삼 사냥꾼(Ginseng Hunter): 북미대륙의 채삼 관행과 채삼인의 이미지」, 『인문과학』 113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8), p. 169.

²⁾ 설혜심, 「서양의학에서의 인삼활용과 한계, 1660-1900: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의사학』 26 (대한의사학회, 2017)를 참조.

³⁾ 설혜심, 「서양의학에서의 인삼활용과 한계, 1660-1900: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pp. 524-525.

출과 소비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그 의문에 답이 될 만한 하나의 지점에 이르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20세기 말 미국의 식이보충제(Dietary Supplement)⁴⁾에 대한 법령 제정과 인삼의 '약재'에서 '식품'으로의 인식 전환이었다.

본고에서는 인삼이 19세기 약전으로부터의 퇴출에도 불구하고, 20세기 미국의 식이보충제 열풍에 편승하여 여전히 유효한 상품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음을 보이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이 글에서는 인삼의 식이보충제 편입이 단지 '미국 사회 내 일부'에만 해당한 것이 아니라, 가장 엄격하게 식품 섭취를 통제하는 집단인 '군대'에까지 이뤄졌음을 보일 것이다. 지금껏 국내외의 관련 연구들 가운데 미국의 식이보충제 관련 법령 제정을 다룬 연구들은 상당수 있었으나, 그것은 대부분 법학과 약학 분야의 연구들로서 인문학적 차원의 접근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⁵⁾ 뿐만 아니라 그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인삼'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으며,⁶⁾ 특히나 식이보충제 관련 법령과 인삼의 미국 내 생존 문제를 결부시켜 다룬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더군다나 미국의 '군대'에서 인삼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서는 국내 외를 막론하고 관심을 보인 연구가 없다. 이에 본 논문은 이러한 연구공백을 메우는 동시

에, 인삼이 식이보충제로서 20세기 이후에 미국에서 보여준 가치와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 고찰하여 해당 분야의 연구자 및 관련 종사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 주목하는 자료는 미국의 식이보충제 관련 법령, 관련 언론 기사들, 그리고 미군에서 활용하는 식이보충제 관련 매뉴얼이다. 먼저 관련 법령으로서는 1994년의 <식이 보충제 건강 및 교육법(Dietary Supplement Health and Education Act, 이하 DSHEA)>⁷⁾이 제정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해당 법안의 어떤 조항이 약전에서 퇴출된 인삼에 식이보충제로서의 새로운 기회를 부여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미국약전 및 국민처방집(United State Pharmacopoeia and National Formulary, 이하 USP-NF)에 인삼이 어떤 시점에 재진입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시점을 전후로 미국 내에서 인삼을 비롯한 식물성 식이보충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였는지를 『뉴욕 타임즈』(New York Times),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 『시카고 트리뷴』(Chicago Tribune), 『로스앤젤레스 타임즈』(Los Angeles Times) 등의 신문 기사들을 통해 분석해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삼의 정착이 단지 미국 사회 일부만이 아닌, 미국 군대에까지 해당되는 것이었음을 『식이보충제와 군 잠수부』(Dietary Supplements and Military Divers, 2004)⁸⁾라는 미군 식이보충제 매뉴얼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서 소개하는 미군 식이보충제 매뉴얼의 인삼 관련 내용들은 국내에 최초로 소개되는 것으로서 차후 미국 인삼 시장에 대한 논의에 흥미로운 고찰을 제공하리라 생각된다.

본 논문의 구성으로는 먼저 2장에서 19세기 미국 인삼이 약전으로부터 퇴출되는 과정과 20세기 말 식이보충제 관련 법령 제정을 통해 미국 내에 새롭게 정착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이어 3장에서는 미국약전 및 국민처방집(USP-NF)에 인삼이 등재되기 시작한 1998년 전후의 여러 신문 기사들을 분석하며 미국 내에서 인삼이 식이보충제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두 개의 상충되는 담론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그러

⁴⁾ 우리나라의 경우 법령과 관련하여서는 '식이보충제'라는 용어보다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식품을 말한다"라고 정의하며, "기능성이라 함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다만 미국의 경우 법적 용어로서 Dietary Supplement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번역할 때 국립국어원에 등재된 '식이'와 '보충제'의 의미가 가장 유사하기에 본 논문에서는 '식이보충제'로 칭하고자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69호, 2014. 5. 21., 일부개정); 국립국어원, "식이", "보충제" (URL: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검색일: 2018년 8월 30일)

⁵⁾ 성현제, 최선미, 윤유식, 「미국에서의 Botanical Products(한약) 품질관리에 관한 연구」,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13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 2000); 이세정, 「건강기능식품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6); 식품의약품안전청, 「미국 Dietary Supplement의 안전성 평가 체계」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 정하명, 「미국의 건강기능식품법: 미국연방 식약청(FDA)의 규제현황을 중심으로」, 『법과 정책연구』 9 (한국법정정책학회, 2009); Marlys J. Mason, "Drugs or Dietary Supplements: FDA's Enforcement of DSHEA," *Journal of Public Policy & Marketing*, 17 (1998); Joseph K. Dier, "S.O.S. From the FDA: A Cry for Help in the World of Unregulated Dietary Supplements," *Albany Law Review* 74 (2010) 등을 참조.

⁶⁾ 성현제·최선미·윤유식의 연구가 미국에서 1998년 인삼이 식이보충제로 편입된 사실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고는 있으나, 그 배경과 의미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 성현제 최선미 윤유식, 「미국에서의 Botanical Products(한약) 품질관리에 관한 연구」, p. 185.

⁷⁾ <Dietary Supplement Health and Education Act of 1994>, Public Law 103-417 (1994).

⁸⁾ Patricia A. Deuster and Rita G. Simmons eds, *Dietary Supplements and Military Divers: A Synopsis for Undersea Medical Officers (Submarine Development Squadron 5, 2004)*.

한 상충되는 담론에도 불구하고 인삼의 식이보충제로의 편입이 단지 미국 사회 내 일부 계층만이 아닌, 국가 차원의 집단인 미국의 '군대'에까지 이뤄졌음을 보일 것이다.

II. 19C 약전에서의 인삼 퇴출과 20세기 말 식이보충제 법령

19세기 미국 약전에서 인삼의 퇴출과 해외 수출⁹⁾

앞서 서론에서 인용한 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설혜심에 따르면 이미 18세기부터 영미권에서는 약전으로부터의 인삼의 퇴출과 배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다. 다만 그러한 퇴출은 명확히 어떤 시점에 일시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었으며, 19세기까지 영미권의 다양한 약전들은 인삼을 여전히 소개하기도, 배제하기도 하면서 다소의 혼란을 불러일으킨다.¹⁰⁾ 설혜심은 이런 복잡한 혼란이 광범위한 '약전의 정의'로 인한 것임을 밝힌다.

오늘날 시각에서 약전이란 의약품의 균질성을 보전하기 위해 제법, 효능, 품질과 저장방법 등에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19세기 전반기까지도 약전이란 사실 약을 다루는 광범위한 출판물을 일컫는 말이었다. 이런 약전들은 대부분 약사가 아닌 의사들에 의해 출판되었고 아직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다. 약전은 지역별로 생산되고 국지적으로 통용되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광의의 약전들은 18세기 후반부터 일종의 개혁을 거치면서 사법적 권위를 가진 근대국가에 의해 승

⁹⁾ 2장 <19C 약전에서 인삼의 퇴출과 20C 말 식이보충제 법령> 가운데 인삼의 퇴출 및 해외 수출과정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설혜심의 연구와 이동필 박훈의 연구, 그리고 E. John Staba, 김정연의 연구 내용을 주로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인삼이 미국 약전으로부터의 배제되는 과정 및 해외로 수출되는 과정은 본 논문의 핵심 논지는 아니지만 2장의 전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므로 선행 연구들에 기대어 간략히 소개만 하고자 한다. 위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할 경우 다음의 연구들을 참고할 것. 설혜심, 「서양의학에서의 인삼활용과 한계, 1660-1900: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설혜심, 「인삼 사냥꾼(Ginseng Hunter): 북미대륙의 채삼 관행과 채삼인의 이미지」, 『인문과학』 113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8); E. John Staba, 김정연, 「미국의 인삼 재배」, 『생약학회지』 2 (생약학회, 1971a); E. John Staba, 김정연, 「미국 인삼사 개요」, 『생약학회지』 2 (생약학회, 1971b); 이동필 박훈, 「미국의 재배삼 수출실적, 1990~1994」, 『고려인삼학회지』 20 (고려인삼학회, 1996); 이동필, 「화기삼의 효능 주장과 미국삼의 발전과정에 대한 고찰」, 『고려인삼학회지』 30 (고려인삼학회, 2006).

¹⁰⁾ 설혜심, 「서양의학에서의 인삼활용과 한계」, p. 526.

인되는 과정을 밟게 된다. 즉, 국가 차원의 약전(national pharmacopeia)이 출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존재했던 약전에 공적인 기준이 부과되고,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온 여러 약들 가운데 '비이성적(irrational)'이라고 평가되는 약들은 배제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런 변화 속에서 이전까지 약전에 포함되었던 식물들의 입지도 흔들리게 되는데, 아직 과학적인 실험방법이 발달하지 못한 이 시기에 식물의 유효성분을 규명하는 일은 매우 어려웠고 개혁 과정에서 '이성적인' 증명이 어려운 많은 식물들이 약전에서 배제되었던 것이다.¹¹⁾

그러나 인삼은 약전에서 배제된 것과는 별개로 여전히 미국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진 식물로 남아있었다. 왜냐하면 미국삼에 대한 끊임없는 중국의 수요가 존재했기 때문이다.¹²⁾ 18-19세기 내내 미국에서 인삼은 대(對)중국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상품 가운데 하나로 기능했고, 그러다보니 국내의 약전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는 인삼 채취 및 판매에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¹³⁾ 이때까지 미국에서 수출되던 인삼은 재배삼이 아닌 야생삼이었는데, 18세기부터 인삼이 무역에서 많은 이익을 창출한다는 사실이 미국 내에 널리 알려지면서 무분별하고 경쟁적인 인삼 채취가 이뤄질 정도였다. 이에 1890년대가 되면 인삼 멸종 위기론까지 팽배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으로 인삼 채취와 관련한 법안이 생기고 인삼 재배를 위한 노력 또한 기울여졌다.¹⁴⁾

이러한 미국 내 인삼 재배 노력의 최초 성공 사례는 1880년대 뉴욕의 조지 스탠턴(George Stanton)이란 인물이었다. 그의 노하우는 1895년 미국 농무부(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에 의해 『미인삼, 그것의 상업적 역사, 보호, 경작』(American Ginseng, It's Commercial History, Protection, and Cultivation)이란 매뉴얼로 출판되었는데 이 책은 많은 농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이 덕분에 1900-1920년대에 이르면 미국 내에 인삼 재배가 점차

¹¹⁾ 설혜심, 「서양의학에서의 인삼활용과 한계」, pp. 526-527.

¹²⁾ 1780년대부터 1900년에 이르기까지 120년 동안 미국에서 중국으로 건너간 건조된 야생삼은 약 2,000만 파운드에 달하며, 야생삼 무역의 절정기였던 1862년의 경우 622,761파운드의 건조삼이 광둥과 홍콩으로 수출되었다. 이동필, 「화기삼의 효능 주장과 미국삼의 발전과정에 대한 고찰」, p. 162.

¹³⁾ 설혜심, 「인삼 사냥꾼(Ginseng Hunter)」, pp. 175-177.

¹⁴⁾ 1856년 미국에서는 최초로 미네소타주에서 인삼법을 통과시키고 인삼의 품질관리와 인삼을 보호하고자 했다. 이 법안은 인삼을 5월초부터 8월초까지만 채굴하고, 거래하도록 제한했다. E. John Staba, 김정연, 「미국 인삼사 개요」, p.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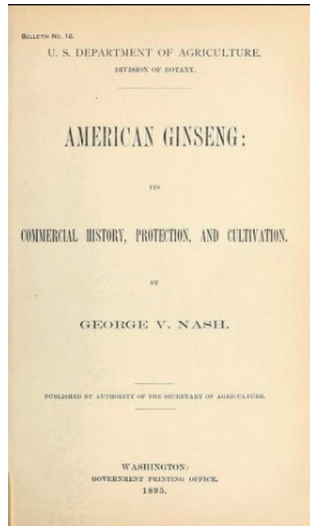


그림 1. 『미국 인삼, 그것의 상업적 역사, 보호, 경작』 표지

확산되어 위스콘신, 미시간, 오하이오, 미네소타 주등에서 인삼 재배가 널리 이뤄졌다.¹⁵⁾ 이렇게 재배된 재배삼과, 초기보다 물량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채취되었던 야생삼은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수출 상품으로서 20세기 초반까지 꾸준히 인기를 끌었다.¹⁶⁾

그러나 1930년대의 대공황으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 제 2차 세계대전 및 1950-60년대 중국과의 단교로 인한 수출 시장 상실 등의 변수는 많은 미국의 인삼 경작자들에게 큰 고난을 안겨줬다. 이로 인해 위스콘신 동부, 오하이오 등의 인삼 경작자들은 대부분 인삼 사업에서 탈락하고 위스콘신의 마라톤 카운티 주변의 대규모 경작자들만 남게 되었다.¹⁷⁾ 다행히도 1970년대로 접어들면서 미국과 중국의 외교가 정상화 되어 대(對)중국 인삼 수출이 다시금 활기를 띠게 되었다. 그 덕분에 1970-80년대에는 수익이 나지 않았던 시기를 잘 견뎌낸 위스콘신의 경작자들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¹⁸⁾

하지만 1990년대를 전후로 하여 다시금 인삼 수출 시장의 변화가 생기는데, 중국에서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던 화

기삼의 수요를 자체적으로 상당 부분 충족시킬 수 있는 '화기삼 대량생산'에 성공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미국의 대(對)중국 인삼 수출 전략에 큰 차질을 야기했다.¹⁹⁾ 1990년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미국의 대(對)중국 인삼 수출량은 1991년에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급감하게 되었고, 이후 1992-1994년에 걸쳐 수출 물량이 다시 회복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예전과 같은 인삼 수출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수출 물량의 회복과는 달리 수출로 얻는 수익의 총액은 점점 떨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미국삼의 평균 수출가격이 킬로그램 당 1992년 106달러에서, 1993년 80달러, 94년도 51.4달러로 점차 떨어졌기 때문이다.²⁰⁾ 이런 변화에 따라 미국삼 재배의 중심지였던 위스콘신 주에서는 1991년부터 홍콩시장에서 중국산 화기삼과 차별화하여 기존의 우위를 지키기 위해 공인상표(Wisconsin seal)을 도안하여 활용하는 노력을 펼치기도 했다.²¹⁾ 하지만 이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했고, 위스콘신에서 대량 생산되는 재배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수출 시장, 혹은 소비 시장의 다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²²⁾

20세기 말 미국 식이보충제 법령과 인삼의 약전 등재²³⁾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인삼 경작자들 및 관련 사업자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 바로 20세기 말에 제정된 식이보충제 관련 법령이었다. 식이보충제 관련 법령

¹⁹⁾ 이동필, 「화기삼의 효능 주장과 미국삼의 발전과정에 대한 고찰」, p. 162.

²⁰⁾ 박성훈, 「일본과 미국의 인삼시장 세분화 연구」 『식품 유통 연구』 23 (한국식품유통학회, 2006), p. 131; 이동필, 박훈, 「미국의 재배삼 수출실적」, pp. 188-189.

²¹⁾ 이동필, 박훈, 「미국의 재배삼 수출실적」, p. 192.

²²⁾ 이동필, 「화기삼의 효능 주장과 미국삼의 발전과정에 대한 고찰」, p. 162.

²³⁾ 20세기 미국의 식이보충제 법령 제정 과정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식이보충제 법령들을 제정하고 그 조항을 설정함에 있어 분명 미국 내부에서 다양한 이해집단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었고, 그로 인해 그 집단들 간에 각종 논쟁 및 로비 과정이 존재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으며, 그것은 차후의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대신에 이 글에서는 미국의 식이보충제 관련 법령의 간략한 역사와, 식품의 건강 강조표시(health claims)를 명확히 규정한 1990년 법령, 식이보충제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인삼을 비롯한 식물 약재들을 포함시키게 되는 1994년 법령의 내용에 주목하여 인삼이 어떻게 미국 내에서 식이보충제로서 자리 잡을 수 있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¹⁵⁾ E. John Staba, 김정연, 「미국 인삼사 개요」, p. 68; 설혜심, 「인삼 사냥꾼(Ginseng Hunter)」, p. 179.

¹⁶⁾ 이동필, 「화기삼의 효능 주장과 미국삼의 발전과정에 대한 고찰」, p. 162.

¹⁷⁾ 이동필, 「화기삼의 효능 주장과 미국삼의 발전과정에 대한 고찰」, p. 162.

¹⁸⁾ Subhuti Dharmananda, "SAFETY ISSUES AFFECTING CHINESE HERBS: The Case of Ginseng," Institute for Traditional Medicine. (Available online: <http://www.itmonline.org/arts/ginseng.htm>).

의 제정 및 개정에 따라 '약재'로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약전에서 퇴출되었던 인삼이, '식품'으로서 미국의 대중에게 새롭게 다가갈 여지가 생겼던 것이었다. 그렇다면 인삼을 포함한 '식물 약재'들의 위치가 완전히 달라지도록 만든 20세기 말 미국의 식이보충제 관련 법령은 어떤 것이었을까?

먼저 미국에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식이보충제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처음으로 기록된 것은 뉴잉글랜드(New England) 초기 정착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이러한 초기의 규제는 강한 구속력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으며,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연방 차원의 정부 규제는 남북 전쟁 때까지 국민들에게 대부분 무시되었다. 비로소 20세기에 접어들어서야 비타민과 미네랄 등에 대한 연구가 진전되면서 건강 증진을 앞세운 제품들이 시장에 범람하게 되어, 식이보충제에 대한 연방 차원의 본격적인 규제가 논의되었던 것이다.²⁴⁾

하지만 1938년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of 1938)>까지는 엄밀히 말해 현재의 '식이보충제' 개념을 포괄하여 다룬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이 법안에서 언급되는 식품이란 통상적인 의미의 '식품'과 '특수식 이용 식품(special dietary uses food)'으로 구분되는데,²⁵⁾ 당시 의회에서는 이 특수식 이용 식품을 "유아용 식품, 환자용 식품, 다이어트용 식품, 특수한 영양조건을 위해서 의도된 그 밖의 다른 식이제품"으로 보았다. 이것은 분명히 '식이보충제'의 개념과는 다른 것으로서, 이 법은 '특수식 이용'을 위한 식품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고 내용 표시의 요건을 만들었다는 점에는 의의가 있지만 식이보충제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²⁶⁾

이런 상황은 1940년대부터 1990년대 이전까지도 별

반 달라지지 않았다.²⁷⁾ 미국 연방 식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하 FDA)에서 식물성 천연물질을 사용한 제품의 명확한 규정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탓에 1940년대부터는 미국 연방 식약청(FDA)과 제조업자, 소비자들 간의 여러 소송과 논쟁들이 벌어졌다.²⁸⁾ 그리고 특히 이런 혼란스러움을 잘 드러내주는 사례가 1987년의 일반 식품에 대한 건강 강조표시(health claims) 허용이다. 1987년 미국 연방 식약청(FDA)은 시판 전 승인절차(premarket approval) 없이 기존에 식품으로 취급되던 제품들에 대한 건강 강조표시를 허용하는 정책을 실험적으로 시도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견잡을 수 없는 혼란을 야기했는데, "지구상의 거의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식품들이 미국 시장에 물밀 듯이 몰려들었던 것이다.²⁹⁾

이런 혼란한 상황을 제어하기 위해 1990년의 <영양표시 및 교육법(Nutrition Labeling Education Act: 이하 NLEA)>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영양소 함량 표시(nutrient contents claim)와 건강 강조표시(health claims)에 관한 실정법적 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³⁰⁾ 특히 이 법에서 식이보충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었던 부분은 '건강 강조표시'였다. 이전의 법안들과는 달리 <영양표시 및 교육법(NLEA)>에서는 건강 강조표시에 질병의 위험의 진단, 처치, 완화, 치료 등에 대한 표시가 아닌, '질병 예방 표시(a disease prevention claim)'만을 허용했던 것이다.³¹⁾

뿐만 아니라 <영양표시 및 교육법(NLEA)>에서는 이러한 건강 강조표시를 하기 위한 절차도 좀 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안에 따르면 연방 식약청(FDA)에서 전문가들에 의해 '유효한 과학적 승인(significant scientific agreement)'을 받을 경우에만 건강 강조표시가 가능하도록 규제되었다. 때문에 이 법령 제정 이전에 시장에 출시되었던 많은 식이보충제들은 건강 강조표시를 인

²⁴⁾ 이런 과정에서 1906년 <연방식품·의약품법(the Pure Food and Drugs Act of 1906)>이 제정되었다. 정하명, 「미국의 건강기능식품법」, pp. 112-113.

²⁵⁾ 여기서 특수식 이용 식품은 "비타민, 미네랄, 그 밖의 영양섭취물질"으로 규정되어 있다.

²⁶⁾ 뿐만 아니라 이 법안까지는 비타민, 무기질 및 '식물성 천연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관련 제품의 상표 표시나 그것을 의약품으로 규제하는 등의 문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이세정, 「건강기능식품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pp. 51-52; 식품의약품안전청, 「미국 Dietary Supplement의 안전성 평가 체계」, p. 12.

²⁷⁾ 이 기간 동안 1958년 <식품 첨가제 수정 법안(Food Additives Amendment)>, 1976년 <건강 연구 및 건강 서비스 수정안(Health Research and Health Services Amendment)> 등이 개정안으로 발표되었지만 산업계,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키지는 못했고 관련 논쟁은 꾸준히 이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미국 Dietary Supplement의 안전성 평가 체계」, pp. 14-19.

²⁸⁾ 식품의약품안전청, 「미국 Dietary Supplement의 안전성 평가 체계」, p. 13.

²⁹⁾ Ilene Ringel Heller, "Functional Foods: Regulatory and Marketing Developments," *Food and Drug Law Journal*, 56 (2001), p. 200.

³⁰⁾ 이세정, 「건강기능식품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pp. 52-53.

³¹⁾ 정하명, 「미국의 건강기능식품법」, p. 117.

정받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³²⁾ 이에 식이보충제 관련 제조업자들은 끊임없는 논쟁과 로비활동으로 연방 식약청(FDA)의 승인제도를 무력화 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1994년 <식이보충제 건강 및 교육법(Dietary Supplement Health and Education Act: 이하 DSHEA)>이 제정되었다.³³⁾

1994년의 <식이보충제 건강 및 교육법(DSHEA)>는 무엇보다도 세계 최초로 '식이보충제(Dietary Supplement)'라는 용어를 법적으로 정의하였고, 그 법적 성격이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³⁴⁾ 그리고 이 법에서 결정적으로 인삼을 비롯한 식물 약재에 새로운 여지를 부여한 것은 '식이보충제의 정의'를 확대한 부분이다. 전통적으로 식이보충제가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등의 필수 영양소를 의미했다면, <식이보충제 건강 및 교육법(DSHEA)>에서는 식이 보충제를 목적으로 복용하는 임의의 제품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로 인해 기존의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뿐만 아니라 '약초(herb), 식물성 물질(botanical), 혹은 이들의 농축물(concentrate), 대사물(metabolite), 추출물(extract)' 등이 추가로 식이보충제의 범위에 포함되었는데,³⁵⁾ 바로 이 지점에서 식물 약재들이 식이보충제 시장으로 파고들어갈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식이보충제 건강 및 교육법(DSHEA)>은 연방 식약청(FDA)의 승인 문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답을 제공했다. 이 법에서는 새로운 식이보충제를 출시하려는 제조업자에게 승인을 받기 위한 2가지 선택권을 부여하는데, 그 첫 번째는 제품이 출시되기 75일 전에 연방 식약청(FDA)에 안전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연방 식약청(FDA)에 안전성 기준을 제정하도록 청원하는 것이다.³⁶⁾ 지금까지 두 번째 방법은 거의 선

택된 바가 없으며, 대부분의 제조업자들은 첫 번째 방법을 선택했다. 여기서 제조업자들이 첫 번째 방법을 선택했던 이유는 연방 식약청(FDA)에 제출하는 안전성에 관한 자료라는 것이 "제품에 표시된 복용방법으로 복용하였을 경우 뚜렷한 위험이나 질환을 보이지 않음"만 증명하면 되었기 때문이었다.³⁷⁾

이러한 1994년 <식이보충제 건강 및 교육법(DSHEA)>의 제정은 미국 내 인삼을 비롯한 식물성 식이보충제 시장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 이제 미국 내에서 인삼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의약품이 아닌 '식품'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었고, 법의 범위 내에서 식이보충제로서의 효능에 대해 광고하며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반영된 것이 바로 1998년, 그리고 2003년의 <미국 약전 및 국민 처방집(USP-NF)>이었다. 1998년에는 <미국 약전 및 국민 처방집(USP-NF)>에 마늘, 은행 등과 함께 아시아 인삼(oriental ginseng)이 등재되었고,³⁸⁾ 2003년에는 미국삼(American ginseng)이 공식적으로 등재되었다.³⁹⁾ 이런 변화는 과거 19세기에 '약재'로서 경원시되면서 약전에서 퇴출되었던 인삼이, 20세기 말에 '식이보충제'로서 약전에 다시 편입되어 자유롭게 활용될 근거가 마련되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러한 20세기 말의 식이보충제 관련 법령의 변화가 미국 내 인삼 소비에 장밋빛 미래만을 보장했던 것은 아니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1994년 <식이보충제 건강 및 교육법(DSHEA)>의 다소 느슨해 보이는 '안전성' 검증 문제는 인삼을 비롯한 기타 식물 약재들의 '위험성'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을 야기했다. 다음 장에서는 인삼이 최초로 식이보충제로 편입된 1998년을 전후로 미국 사회에서 인삼을 비롯한 식물성 식이보충제들에게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위험 담론'과 그에 반하는 '옹호 담론'의 충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³²⁾ Ilene Ringel Heller, "Functional Foods: Regulatory and Marketing Developments," p. 199.

³³⁾ <Dietary Supplement Health and Education Act of 1994>, Public Law 103-417 (1994); Joseph K. Dier, "S.O.S. From the FDA: A Cry for Help in the World of Unregulated Dietary Supplements," Albany Law Review 74 (2010), p. 394; 정하명, 「미국의 건강기능식품법: 미국연방 식약청(FDA)의 규제현황을 중심으로」, p. 120; 식품의약품안전청, 「미국 Dietary Supplement의 안전성 평가 체계」, p. 13, 20.

³⁴⁾ 이세정, 「건강기능식품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p. 58.

³⁵⁾ <Dietary Supplement Health and Education Act of 1994>, "3. Definitions," Public Law 103-417 (1994); 성현제·최선미·윤유식, 「미국에서의 Botanical Products(한약) 품질관리에 관한 연구」, p. 184.

³⁶⁾ <Dietary Supplement Health and Education Act of 1994>, "8. New Dietary Ingredients," Public Law 103-417 (1994).

³⁷⁾ 같은 맥락에서 연방 식약청(FDA)에서는 특정 식이보충제가 뚜렷한 위험이나 질환을 야기할 경우에만 규제할 수 있게 되었다. Dier, "S.O.S. From the FDA: A Cry for Help in the World of Unregulated Dietary Supplements," pp. 392-394; 성현제·최선미·윤유식, 「미국에서의 Botanical Products(한약) 품질관리에 관한 연구」, p. 184.

³⁸⁾ 성현제·최선미·윤유식, 「미국에서의 Botanical Products(한약) 품질관리에 관한 연구」, p. 185.

³⁹⁾ Simon Mills, Kerry Bone, The Essential Guide to Herbal Safety (St. Louis: Churchill Livingstone, 2005), p. 435.

Ⅲ. 인삼의 식이보충제 편입 이후: '위험 담론'과 '옹호 담론'

1998년 12월 말 미국의 한 신문기사에서는 인삼을 비롯한 식물성 식이보충제가 1998년을 전후로 하여 미국 사회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번창하게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올해 가을부터 워너-램버트(Warner-Lambert), 바이어 사(Bayer Corp), 화이트홀-로빈스 헬스케어(Whitehall-Robins Healthcare) 등 몇몇 대형 제약회사들이 식이보충제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 식물 약제들은 오랫동안 치료제로서 여러 국가들에서 널리 사용되었지만, 미국에서는 2차 대전 동안 식물 약제들이 인기를 잃고 합성 약품이 인기를 끌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에 이르러 다시 식물 약재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는데, 식물 약재가 좀 더 안전하고, 저렴하며, 자연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식물성 식이보충제의 판매량은 1996년 29억 8천 달러, 1997년 35억 달러, 그리고 1998년에는 41억 달러로 해가 거듭할수록 점차 늘어나고 있다.⁴⁰⁾

이 기사에서는 그 식물 약재의 대표적인 사례로 6개의 식물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에키네이서(Echinacea),⁴¹⁾ 마늘(Garlic), 세인트 존스 워트(St. John's wort),⁴²⁾ 은행(Ginkgo biloba), 톱야자(Saw palmetto),⁴³⁾ 그리고 인삼(Ginseng)이다. 이 6개의 식물은 감기, 독감 치료부터 스트레스 감소 및 노화 방지 작용까지 다양한 건강 증진 효과와 연결되어 있다.⁴⁴⁾ 그런데 이 기사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이처럼 식물 약재가 미국 시장에 잘 정착하게 되었음을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미국 사회의 우려가 함께 존재함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식물 약재의] 예상되는 호황에도 불구하고, 비판적인 견해를 지닌 사람들은 약초의 사용을 뒷받침할만한 충분한 과학적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러한 식이보충제가 상표(labels)에서 홍보하고 있는 것을 실제로 잘 담고 있는지 엄격히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미국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지적한다.⁴⁵⁾

이러한 우려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1994년 <식이보충제 건강 및 교육법(DSHEA)>의 다소 느슨한 안전성 검증 제도와의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단지 안전성 검증만의 문제인지는 다소 의문이 남는다. 특히 1998년 이후 언론 기사에 나타나는 식물 약재에 대한 미국 의학계의 반응은 과거 19세기 서구 의학계의 반응과 비교할 때 상당히 흥미롭다. 19세기 서구의 과학자, 의료인들이 '효능이 없어서', 혹은 '기술의 부족으로 유효성분을 추출하지 못해서' 인삼을 비롯한 식물 약재를 약전으로부터 퇴출시켰다면, 이제는 그것의 효능에 대해 문제를 삼기보다는 '부작용과 위험성'을 알리는 데에 주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부분은 그들이 부작용과 위험성을 제기하는 방식 자체가 식이보충제의 상표에 과장된 광고와 별반 다를 바 없으며, 그들 역시 '명확한 과학적 근거'는 제시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다음의 「과학자들은 약초에 좀 더 많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Scientists Say Herbs Need More Regulation")이라는 기사를 살펴보자.

밴쿠버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데이비드 키츠(David Kitts) 박사에 따르면 인삼은 노화 방지의 성분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리어노어 아랍(Leonore Arab) 박사는 그러한 노화 방지 성분이 동맥 질환과 노화와 관련된 특정한 종류의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 효능은 증명된 바가 없고 그것이 암 환자들에게 안전하지도 확실하지도 않다고 주장한다.⁴⁶⁾

이 기사에서 살펴볼 수 있는 흥미로운 부분은 인삼에 대한 서구 의학계 내부의 주장들이 상충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 학자는 인삼이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또 다른 학자는 그 효능이 검증된 바가 없고 오히려 건강에

⁴⁰⁾ Nanci Hellmich, "The Botanical Business for the Big Drug Firms, Market is Ripe for Expansion into Herbals," USA TODAY, 14. Oct. 1998.

⁴¹⁾ 데이지와 비슷하게 생긴 꽃으로 면역력을 높여주는 약용 식물로 알려져 있다.

⁴²⁾ 약용 식물로서 우울증, 불면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⁴³⁾ 약용 식물로서 전립선염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⁴⁴⁾ Hellmich, "The Botanical Business for the Big Drug Firms."

⁴⁵⁾ Hellmich, "The Botanical Business for the Big Drug Firms."

⁴⁶⁾ Denise Grady, "Scientists Say Herbs Need More Regulation," New York Times, 07. Mar. 2000.

위험이 될 수도 있음을 언급한다. 여기서 더 주목해볼 부분은 효능을 주장하는 측과 위험성을 주장하는 측이 모두 서로를 완전히 납득시킬 수 있을만한 명확한 과학적 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한다는 부분이다. 먼저 인삼이 건강 증진에 효능이 있다는 사실은 세계적으로 너무도 오랫동안 잘 알려진 것이지만, 그것의 효능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는 21세기로 접어드는 시점까지도 미국 의학계를 완전히 납득시키지 못한 듯하다. 반면 리어노어 아랍 박사의 "인삼이 암환자에게 안전하지 확실하지 않다"라는 주장 역시 어떤 통계자료나 근거 제시도 없이 "확실하지 않다"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끝을 맺고 있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는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효능의 '과대 광고'와, 검증되지 않은 위험성에 대해 언급하는 의학계의 '과대 위험 광고'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어쩌면 이것은 인삼을 시장에 홍보하고 팔아야 하는 식이보충제 업체와 "사람들이 전문가에게 찾아오지 않고 잡지를 통해 정보를 얻는다"⁴⁷⁾고 불만을 토로하는 의료계 간의 이해관계 다툼에서 촉발된 '담론 충돌'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기사에서는 이러한 담론 충돌의 근본적인 원인이 1994년 <식이보충제 건강 및 교육법(DSHEA)>임을 명확히 지적한다.

1994년 <식이보충제 건강 및 교육법(DSHEA)> 하에서 식물 약재들은 약이 아닌 식이보충제로 분류되었다. 이것은 곧 식약청에 의한 품질 관리가 더 이상 이뤄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 퍼듀 대학의 바로 E. 타일러(Varro E. Tyler) 박사는 그로 인해 돈 낭비일 뿐인 '불량 제품(junk products)'들이 시장에 넘치게 되었다고 말한다.⁴⁸⁾

한편 식물성 식이보충제를 다루는 언론 기사들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위험 담론을 언급하는 이들이 인삼을 비롯한 대표적인 식물 약재들과 기타 식물 약재들을 하나로 묶어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식물성 식이보충제'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Los Angeles Times)에 실린 「식이보충제로 어린이들을 노리다」("Aiming Dietary Supplements at Kids")라는 기사를 살펴보자. 이 기사에서는 식이보충제 회사들이 어린이들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자연적인' 치료와 '건강한' 식품임

을 강조하는 적극적인 판매 전략을 펼쳐 20%에 가까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식물 약재로 된 식이보충제를 먹고 있음을 언급한다.⁴⁹⁾ 그러면서 이와 함께 언급되는 내용들은 앞서 살펴본 '위험 담론'의 편에 서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떤 '미지의 두려움'까지 포함하고 있다.

비록 몇몇 제품들이 [건강에]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식이보충제 사용 급증에 대해 소아과 의사들, 청소년 건강 관계자 및 보건 당국은 그것을 경계하고 있다. 그들의 견해에서 많은 제품들은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심지어 몇몇 제품들은 위험하기까지 하기 때문이다. 식이보충제들은 대부분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고, 통제되지 않고 있다. 이런 식이보충제들이 청소년들의 건강에 단기·장기적으로 미치게 될 효과는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몇몇 경우에는 그것들이 위험하다는 증거도 있다.⁵⁰⁾

이 기사를 읽으면서 다소 의문이 드는 부분은 식이보충제가 위험하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혹은 그 근거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물성 식이보충제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식이보충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대부분의 언론 기사들은 그 위험성을 각 개별 식이보충제마다 별도로 정확히 언급하지는 않으며, 단지 1~2개의 사례만을 언급하면서 전체 식물성 식이보충제를 하나로 묶어 '검증되지 않은, 미지의 위험한' 식품처럼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마황의 1회 복용량을 초과하여 복용한 탓에 가슴 통증으로 병원에 실려 간 소녀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인삼과 에키네이셔 역시 "가볍고(minor), 드문(infrequent)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고 언급하는 식이다. 식이보충제가 제품 상표에 표시된 것만큼 효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지적에 해당하는 사례 역시 단지 마황만을 언급하면서, 여기에 인삼과 세인트 존스 워트를 은근슬쩍 함께 언급한다. 이런 식의 서술은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문제가 되는 식이보충제와 함께 언급된 인삼의 효능이나 위험성에 대하여 오독할 여

⁴⁷⁾ Grady, "Scientists Say Herbs Need More Regulation."

⁴⁸⁾ Grady, "Scientists Say Herbs Need More Regulation."

⁴⁹⁾ Guy Gugliotta, "Aiming Dietary Supplements at Kids; Children: Companies are targeting parents while pediatricians and officials worry about lack of regulation and testing," Los Angeles Times, 03. July. 2000.

⁵⁰⁾ Gugliotta, "Aiming Dietary Supplements at Kids."

지를 남긴다.⁵¹⁾

한편 '위험론자'들이 '정보의 부족', '미흡한 검증'을 주장할 때, '옹호론자' 측에서는 인삼을 비롯한 식물성 식이보충제가 미국 밖에서는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아무 문제없이 널리 쓰인, 이미 잘 알려진 건강 증진 방법임을 밝힌다.

약초 옹호론자의 편에 있는 미국 약용식물협의회(American Botanical Council)의 회장 마크 블루먼솔(Mark Blumenthal)은 식이보충제에 대한 '공식적인 위험-효능 검토'가, 특히나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이뤄지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가 주지하는 것은 많은 약초 치료법이 미국 밖에서는 수백, 수천 년 동안 사용되었고 널리 잘 알려져 있다는 점이다. 그는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약초들이 세계적으로 충분히 잘 연구되어있다"고 밝혔다.⁵²⁾

이처럼 옹호론자들의 입장에서는 식물성 식이보충제가 새롭게 만들어진 미지의 위험한 제품이 아니며, 오랜 세월 세계적으로 사용된 제품들로서 미국에서만 이것을 뒤늦게 깨우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식이보충제 업계에서 내세우는 주된 논리이기도 하다. 다음의 기사를 살펴보자.

건강기능식품 전문 잡지사인 뉴 홉 내츨럴 미디어(New Hope Natural Media)의 편집장 카렌 레이터맨(Karen Raterman)은 "기능성 식품들은 어떤 성분이 약간 더 강화된 '음식 제품'이며, 그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허브티를 마셔왔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더 많은 유형으로 접하게 된 것 뿐이다"라고 말했다.⁵³⁾

그렇다면 이처럼 '미지의 위험성'을 제기하면서 우려를 표하는 '위험 담론'과 '친근함과 자연성'을 강조하는 '옹호 담론' 사이에서 소비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흥미로운 부분은 미국의 대중들이 '위험론자'들이 제기하는 식이보충제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에 앞서, 오히려 기존의 일반 의약품(pharmaceutical products)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면서 그것의 대체제로 식물성 식이보충제를 활용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약초 식이보충제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라는 기사를 살펴보자.

캘리포니아대학교 어바인 캠퍼스(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의대 임상 교수이자 의료 센터 부원장인 랄프 시강(Ralph Cygan) 박사는 "식이보충제들이 '천연의(natural)'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처방을 받지 않아도 [복용하여] 여러 증상들을 완화시켜줄 수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힌다.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 정골 요법(osteopathic medicine)에 종사하는 게리 딜루스키(Gary Dylewski)는 자신의 환자 절반이 약초 식이보충제에 대해 문의한다고 밝히며 그 환자들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렇게 문의하는 환자들은] 현대의 일반 의약품을 섭취하는 것에 익숙했던 사람들, 식이보충제가 일반 의약품만큼 효과가 있을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부터, 일반 의약품의 부작용을 걱정하며 더 안전한 대안을 찾는 사람들까지 다양합니다."⁵⁴⁾

위의 기사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식물성 식이보충제를 찾는 사람들은 현대 의학에 무지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현대 의학을 이미 접해 본 사람들이며, 그 현대의 학에서 원하는 일반 의약품의 부작용을 걱정하며 '천연의' 식이보충제를 찾는 사람들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아무런 정보 없이 식이보충제 업계에서 원하는 과장 광고를 무지몽매하게 따르는 무지한 대중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건강을 염려하며 가장 부작용이 적으면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현명한 대중'에 가까워 보인다.

코스타 메사 마덜즈 마켓(the Costa Mesa Mother's Market)의 식이보충제 담당자인 폴 홀든(Paul Holden)은 "우리의 핵심 고객들은 수년 동안 약초에 대해 공부하고 연구하며 구입해온 분들입니다"라고 밝힌다. 그런 정보를 토대로 몇몇 고객들은 세인트 존스 워트, 은행, 톱야자를 기존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그리고 에키네이서, 인삼, 포도종자 추출물(grapeseed extract)을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구입한다는 것이다.⁵⁵⁾

위의 기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미국 대중들은 의학계의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위험성 언급에

⁵¹⁾ Gugliotta, "Aiming Dietary Supplements at Kids."

⁵²⁾ Gugliotta, "Aiming Dietary Supplements at Kids."

⁵³⁾ Shari Roan, "Food as Medicine 'Functional Foods' Fortified with Dietary Supplements," *The Spectator*, 29. Mar. 1999.

⁵⁴⁾ Lisa Lytle, "Herbal supplements gaining popularity," *Austin American Statesman*, 12. June. 1998.

⁵⁵⁾ Lytle, "Herbal supplements gaining popularity."

흔들리는 대신, 자신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에 근거하여 인삼을 비롯한 식물성 식이보충제를 계속해서 구입했다. 미국 내에서 1998년에서 2002년 사이의 식물성 식이보충제의 판매액은 41억 달러에서 43억 달러까지 계속해서 늘어났으며, 이 기간 중 2000년에는 인삼이 미국 내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식물성 식이보충제였다.⁵⁶⁾ 즉, 사회 내의 식물성 식이보충제를 둘러싼 담론의 충돌과는 별개로 인삼의 식이 보충제로의 편입과 확산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진행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런 미국 내의 반응은 국가 차원의 내부 집단인, 그리고 식품 섭취에 있어서 그 어떤 집단보다도 엄격한 규제를 가하는 '군대' 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IV. 담론 충돌의 결론?: 미군 식이보충제 매뉴얼에 진출한 인삼

1994년 <식이보충제 건강 및 교육법(DSHEA)>의 제정 이후 미국 내 식이보충제의 성행은 일반 사회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통제를 받는 내부 집단인 군대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21세기 이후의 통계자료들을 살펴보면 미국 내 일반인들의 50% 정도가 식이보충제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미국의 군인들의 경우 더 높은 비율인 60-70%가 식이보충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적인 능력 향상이 필요한 직업의 기본 특성과 힘든 환경에서 강도 높은 임무를 하게 되는 군인들의 생활 환경적 요인이 결합된 결과일 것이다.⁵⁷⁾

이러한 군대 내부의 식이보충제 사용의 활성화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위험 담론'의 주장들은 당연히 미 국방부(the Department of Defense, 이하 DoD)에 큰 고민거리를 안겨줬으리라 생각된다.

미 국방부(DoD)는 국가의 전투력을 유지, 증진하기 위해 군인들에게 해가 되는 것은 사전에 차단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권장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

락에서 2000년대 초부터 미 국방부 차원에서, 그리고 육·해·공군 각 군 차원에서 다양한 식이보충제 섭취 가이드들이 등장하게 된다.

안타깝게도 국내에서 접근 가능한 자료들만으로는 미군 내부에서 이런 논의가 정확히 언제 처음 등장하게 되었는지는 특정하기는 쉽지 않다.⁵⁸⁾ 다만 여기서는 그러한 논의가 2000년대 초 미국 사회 내부의 '위험 담론' 논의와 맥을 같이 한다는 정도의 짐작만이 가능할 뿐이다. 2002년 미 국방부(DoD)에서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널리 알려진 마황(ephedra)이 심장 질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군대 식품판매소(military commissary)에서의 판매를 전격 금지했다. 이는 2003년 12월에 미 연방식약청(FDA)에서 마황(ephedra)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시장 판매를 금지하고, 2004년 4월에야 그 조치가 효력을 발휘하게 된 것과 비교할 때 거의 2년 정도 빠른 선제적인 조치였다.

이는 군대라는 조직이 얼마나 조직원의 식품 섭취에 대해 민감하게 고려하고 반응하는지 잘 살펴볼 수 있는 사례이다.⁵⁹⁾

이런 점에서 미군 군대의 식이보충제 매뉴얼에 실린 '인삼' 관련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미국에서 인삼이 얼마나 '공식적인' 식이보충제로서 받아들여졌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 글에서 미군에서 발행된 수많은 식이보충제 매뉴얼들을 모두 다룰 수는 없기에, 국내에서 인터넷으로 접근 가능한 자료들 중 가장 초창기에 발간된 『식이보충제와 군 잠수부』(Dietary Supplements and Military Divers, 2004)⁶⁰⁾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식이보충제와 군 잠수부』는 초창기에 쓰인 식이보충제 매뉴얼임에도 불구하고, 미 의학연구소(the Institute of Medicine)에서 발행한 공식 보고서 『군인들의 식이보충제 사용』(Use of Dietary Supplements by Military Personnel, 2008)과 비교하더라도 내용에 결코 부족함이 없

⁵⁶⁾ 식품의약품안전청, 『미국 Dietary Supplement의 안전성 평가 체계』, p. 3; Patricia A. Deuster and Rita G. Simmons eds., Dietary Supplements and Military Divers: A Synopsis for Undersea Medical Officers (Submarine Development Squadron 5, 2004), p. 11.

⁵⁷⁾ Joseph J. Knapik, Krista G. Austin, Emily K. Farina, Harris R. Lieberman, "Dietary Supplement Use in a Large, Representative Sample of the U.S. Armed Forces," Journal of the Academy of Nutrition and Dietetics 118 (2018), p. 1370.

⁵⁸⁾ 미 국방부와 육·해·공군에서 어떤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언제부터 식이보충제 매뉴얼을 발간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논의는 차후 연구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⁵⁹⁾ Stephen Gonsalves, Trisha Stavinoha, Linda Hiote, Janelle Costa, George Dilly, Patricia A. Deuster, "Dietary Supplements in the Department of Defense: Possible Solutions to Optimizing Force Readiness," Military Medicine, 177 (2012), p. 1465.

⁶⁰⁾ Patricia A. Deuster and Rita G. Simmons eds., Dietary Supplements and Military Divers: A Synopsis for Undersea Medical Officers (Submarine Development Squadron 5,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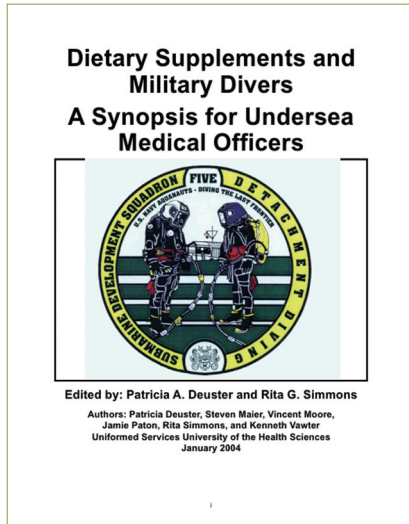


그림 2. 『식이보충제와 군 잠수부』 표지

다.⁶¹⁾ 때문에 본고에서는 이 『식이보충제와 군 잠수부』를 통해 2000년대 초반, 즉 사회 내에 식물성 식이보충제에 대한 담론 충돌이 나타나던 시점에 미군의 인삼 인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⁶²⁾

먼저 『식이보충제와 군 잠수부』는 군 잠수부들(military divers)뿐만 아니라 잠수 의료 장교(Undersea Medical Officers)들에게 식이보충제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기 위해 제5잠수 발전 전대(Submarine Development Squadron 5) 내의 잠수 분견대(Detachment Diving) 주관으로, 미국 국립 군의관 의과대학교(Uniformed Services University of the Health Sciences) 소속의 저자들이 작성한 책이다. 이 책의 서문에서 언급하는 ‘영양보충제에 대한 관심(Concerns about Nutritional Supplements)’은 식이보충제와 군 다이버들, 나아가 식이보충제와 군과의 관계에 대해 잘 설명해준다.

군 다이버 세계에서 식이보충제 사용에 대한 관심은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제한된 수준의 연구 정보, 이용의 용이함, 정보

의 의심스러운 출처, 근거가 없거나 과장된 치료 효과, 군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정신적, 육체적 능력 등이 모두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⁶³⁾

즉, 군에서의 식이보충제는 제한된 수준의 의심스러운 정보에도 불구하고 군에서의 특수한 육체적, 정신적 필요로 인해 쉽게 손이 가게 되는 제품인 것이다. 여기에는 이러한 군에서의 식이보충제 성행 이유뿐만 아니라 식이보충제와 의학계 간의 관계에 대한 솔직한 언급도 보인다.

식이보충제의 다양성, 이용가능성, 판매, 사용에 대해 주류 의학계에서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잠수 의료 장교들은 식이보충제의 사용 및 남용이 갖는 잠재력에 대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많은 제품[식이보충제]들이 갖는 부인할 수 없는 약학적 효능에도 불구하고, 식이보충제의 사용은 대부분의 의료인들에게 일반적으로 무시되고 있다. 식이보충제에 대한 정보는 의학 교육에서 깊이 있게 다루지지 않으므로, 의사들은 이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훈련받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의료인들이 점차 증가하는 보충제 약전과 관련하여 익숙하지 않다는 점에서 불쾌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⁶⁴⁾

『식이보충제와 군 잠수부』는 이러한 식이보충제와 관련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받아들이면서, 의학계의 식이보충제에 대한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군 의료계에서만은 그에 대해 반드시 제대로 알고 조언해야한다는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다. 이 책 역시 식이보충제가 문제로 대두되게 된 배경과 관련해서는 1994년 <식이보충제 건강 및 교육법(DSHEA)>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연방식약청(FDA)이 강한 규제를 하기 어려우므로 이 매뉴얼을 통해 군 다이버와 의료 장교들에게 적절한 조언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여기서 인삼은 어떻게 인식되고, 다루지고 있을까? 먼저 식이보충제 분류에 있어서 인삼은 ‘에너지 보충제(energy enhancers)’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 항목에서 소개되는 8개의 에너지 보충제 가운데 카페인(caf-

⁶¹⁾ 미 의학 연구소에서 2008년 발행한 『군인들의 식이보충제 사용』은 이후 미군의 식이보충제 매뉴얼에 기준이 되는 보고서이다. Gonsalves, Stavinocha, Hiote, Costa, Dilly, Deuster, “Dietary Supplements in the Department of Defense: Possible Solutions to Optimizing Force Readiness,” p. 1465.

⁶²⁾ 특히 인삼에 관한 내용의 상세함에 있어서는 『식이보충제와 군 잠수부』와 『군인들의 식이보충제 사용』이 큰 차이가 없다. M. R. C. Greenwood and Maria Oria eds., Use of Dietary Supplements by Military Personnel (Washington: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2008), pp. 128-134.

⁶³⁾ Deuster and Simmons eds., Dietary Supplements and Military Divers, p. 1.

⁶⁴⁾ Deuster and Simmons eds., Dietary Supplements and Military Divers, p. 1.

| | | |
|---|-----------------------|------------------------------|
| Ayurvedic or Indian ginseng | Ashwagandha | Withania somnifera |
| Bastard or false ginseng or dangshen | Bellflower | Codonopsis pilosula |
| Bitter ginseng or kushen | Pagoda tree | Sophora japonica |
| Blue or yellow ginseng | Blue Cohosh | Caulophyllum thalictroides |
| Brazilian ginseng | Suma | Pfaffia paniculata |
| Cinnabar-colored ginseng or danshen | Red Sage | Salvia miltiorrhiza |
| Northern sand ginseng or beishashen | Beach Silvertop | Glehnia littoralis |
| Peruvian ginseng or ayak willku | Maca | Lepidium peruvianum |
| Prince s ginseng or taizishen | Lesser Ginseng | Pseudostellaria heterophylla |
| Purple ginseng or quan shen | Bistort or Dragonwort | Polygonum bistorta |
| Sand ginseng or nanshashen | Ladybells | Adenophora triphylla |
| Southern ginseng, xianxao or fairy herb | Jiaogulan | Gynostemma pentaphyllum |

그림 3. 인삼과 이름이 비슷하거나 쓰임새가 비슷하지만 인삼이 아닌 식물 도표⁶⁵⁾

feine) 바로 다음인, 두 번째에 위치해있다.⁶⁵⁾ 이 매뉴얼은 각 보충제마다 원료(sources), 화학적 구성(chemical composition), 작용기전(mechanism of action), 보고된 용례(reported uses), 복용량(dosages), 과학적 증거(scientific evidence), 총평(comments), 참고문헌(references) 등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특히 인삼에 대한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상세하다.

먼저 원료 항목에서는 인삼이 어떤 식물에 속하며, 어떻게 분류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인삼은 두릅나무과(Araliaceae) 식물군의 식물로부터 추출한 추출물(extracts)을 뜻한다. 이 식물군의 가장 잘 알려진 식물들은 아래와 같다.

- 인삼(*Panax ginseng*, 혹은 *P. shinseng*)은 아시아(Asian or Asiatic), 중국(Chinese), 한국(Korean), 동양 인삼(Oriental ginseng)을 포함한다. 그것은 또한 구이가이(guigai), 진삼(jintsam), 닌진(ninjin), 홍삼(radix ginseng rubra), 렌셴(ren shen), 상(sang) 또는 쉹(seng)이라고도 불린다.
- 화기삼(*Panax quinquefolius*)에는 캐나다, 북미, 온타리오

및 위스콘신삼이 포함되며, 안치(Anchi), 레드 베리(red berry), 다섯-잎 인삼(five-leafed ginseng), 다섯 손가락 뿌리(five-fingers root), 가란토젠(garantongen), 쟈셴(jen-shen), 그리고 닌신(ninsin)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가시오갈피나무(*Eleutherococcus* (or *Acanthopanax*) *senticosus* or *Hedera senticosa*)는 시베리아(Siberian), 러시아(Russian), 그리고 가시오가피 인삼(*Eleuthero ginseng*), [...] 악마의 관목(devil's shrub or bush), 시고카(shigoka), 우수리(Ussuri), 타이가 뿌리(Taiga root) 등을 포함한다.
- 홍삼과 백삼은 모두 인삼을 의미하지만, 홍삼은 열이나 햇빛에 쪼고 말리는 반면 백삼은 건조되거나 또는 분말로 된 뿌리다.⁶⁶⁾

『식이보충제와 군 잠수부』에는 이런 명확한 인삼의 분류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일본삼(*Panax japonica*)이나 삼칠삼(*Panax notoginseng*), 삼엽삼(*Panax trifolius*), 강상칠삼(*Panax zingiberensis*) 등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으며, 인삼과 이름이 비슷하거나 쓰임새가 비슷하지만 인삼이 아닌(not true ginseng) 식물에 대해서도 도표로 정리하여 설명하고 있다. 에너지 보충제 중 첫 번째로 언급된 카페인에 대한 설명 전체가 불과 2페이지에 불과한 것에 비해, 인삼은 6페이지에 걸쳐 작성되어 있으

⁶⁵⁾ Deuster and Simmons eds., Dietary Supplements and Military Divers, p.6.

⁶⁶⁾ Deuster and Simmons eds., Dietary Supplements and Military Divers, p.7.

며 분류와 이름 소개에만 1페이지 이상을 할애한다는 점은 상당히 흥미롭다.⁶⁷⁾

뿐만 아니라 화학적 구성(chemical composition)과 작용 기전(mechanism of action) 및 과학적 증거(scientific evidence) 역시 1페이지 이상 상당히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아시아 연구자들에 의해 진세노사이드(ginsenoside)로 알려진 사포닌 트리테르페노이드 글리코사이드(saponin triterpenoid glycosides)에 대한 설명이나, 엘로테로사이드(eleutherosides)의 화학적 작용에 대한 설명, 다양한 임상실험과 연관 지어 밝히고 있는 과학적 증거 등은 매우 전문적인 수준에서 작성되어 있다.⁶⁹⁾

그리고 보고된 용례(Reported Uses)의 경우에는 인삼을 특정 질병이나 건강 문제만이 아닌, 건강에 대한 거의 모든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식이보충제로서 설명하고 있다.

“모든 치유(all-healing)”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인삼은 에이즈(AIDS)부터 대상포진(zoster)까지 다양한 종류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으로 홍보되어 왔다. 전통 중국 의학(traditional Chinese medicine)에서는 기(Qi)라고 불리는 생명력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삼은 생명력, 건강, 수명, 힘, 지혜, 그리고 일반적인 웰빙을 위한 강장제로 자주 소비된다. [...] 인삼은 흔히 노화의 영향을 늦추거나 줄이기 위해 섭취되며, 안면 홍조, 당뇨, 압,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연령 관련 질환에서도 복용된다. 운동 선수들은 강한 훈련 중에 체력과 운동능력의 향상을 위해 인삼을 복용할 수 있다.⁷⁰⁾

한편 인삼의 부작용(adverse reactions)에 대해서는 다양한 증상들이 있을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는데, 다만 그 부작용의 정도가 심각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밝히고 있다.

- 중추신경계통(central nervous system, CNS): 불면증, 어지럼증, 두통, 행복감(euphoria), 조광증(mania)
 - 심장 혈관(cardiovascular, CV): 심박급속증(tachycardia), 심장 두근거림(palpitations), 고혈압(hypertension), 저혈압(hypotension), 부종(edema)
 - 위장(gastrointestinal, GI): 식욕 감소, 설사, 담즙울체성간염(cholestatic hepatitis)
- [...] 대부분의 부작용은 경미하고 발생하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인삼을 여러 성분 중 하나로 포함하는 복합 제품에서는 [인삼이 원인이라는]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인삼은 에페드린(ephedrine), 슈도에페드린(pseudo-ephedrine)과 같은 자극적인 약물과 섞일 경우 부작용이나 약물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⁷¹⁾

마지막으로 복용 금지 사유(Contraindications)에서는 흥미롭게도 중국의 약초학자들로부터 서양에 전파된 고려인삼(Panax ginseng)에 대한 오해인⁷²⁾ ‘승열작용’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중국 약초학자들은 궤양, 고혈압, 긴장성 두통, 신경과민, 염증, 그리고 열과 같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고려인삼을 사용하지 말라고 권한다. 현대 서양의학도 이에 대해 동의하며, 인삼이 불면증과 정신분열증을 포함한 이러한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 [...] ⁷³⁾

이처럼 『식이보충제와 군 잠수부』에 나타나는 식이보충제로서의 인삼에 대한 설명은 웬만한 학술논문에 실린 내용보다 자세하고 깊이가 있다.

물론 ‘위험 담론’에 있어서는 미국 사회 전반에서 다뤄진 인삼 관련 담론들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으며,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식이보충제와 군 잠수부』에서는 인삼의 위험에 대해 과장하여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며, 효능에 대한 충분한

⁶⁷⁾ Deuster and Simmons eds., Dietary Supplements and Military Divers, p. 7.

⁶⁸⁾ Deuster and Simmons eds., Dietary Supplements and Military Divers, p. 7.

⁶⁹⁾ 본 논문에서 인삼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련 내용을 별도로 옮기지는 않았다. 『식이보충제와 군 잠수부』에 실린 과학적 설명에 대해 관심이 있는 독자는 Deuster and Simmons eds., Dietary Supplements and Military Divers, pp. 8-9를 참조할 것.

⁷⁰⁾ Deuster and Simmons eds., Dietary Supplements and Military Divers, p. 8.

⁷¹⁾ Deuster and Simmons eds., Dietary Supplements and Military Divers, p. 9.

⁷²⁾ 고려 인삼의 승열작용과 화기삼의 청열작용의 오해가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는 이동필, 『화기삼의 효능 주장과 미국삼의 발전과정에 대한 고찰』, pp. 163-164를 참조할 것. 고려 인삼의 승열작용에 대한 학술적인 반박은 남기열, 양병욱, 신왕수, 박종대, 『고려인삼(Panax ginseng)과 미국삼(Panax quinquefolium)의 승열작용에 대한 비교 고찰』, 『생약학회지』 49 (한국생약학회, 2018)를 참조.

⁷³⁾ Deuster and Simmons eds., Dietary Supplements and Military Divers, p. 10.

한 과학적인 설명과 함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큰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⁷⁴⁾ 특히 마지막 총평(Comments)에서 인삼을 “인간의 신체 활동을 위해 가장 많이 연구된 약초이며, 미국에서 2000년에 6천 2백만 달러의 총 소매 매출로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식물 약재 식이 보충제”⁷⁵⁾라고 밝히고 있다는 점은 이 책이 인삼의 가치에 대해 충분히 인정한다는 방증이다.

V. 결론

이 논문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인삼이 19세기 약전에서 의 퇴출 위기를 거친 이후, 20세기에는 수출 상품으로서 위기를 겪고 결국은 ‘식이보충제’로서 미국 내에 정착하게 되는 과정을 다뤘다.

이 과정 속에서 1994년의 <식이보충제 건강 및 교육법(DSHEA)>이라는 법령은 인삼을 비롯한 식물성 식이보충제들이 미국의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해줬고, 그 결과 <미국 약전 및 국민 처방집(USP-NF)> 등재라는 결과까지 성취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인삼과 기타 식물성 식이보충제들의 완전한 연착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식물성 식이보충제들의 무차별적인 확산을 경계한 미국의 의학계에서는 끊임없이 ‘위험 담론’을 제기하면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식이보충제 활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것은 <식이보충제 건강 및 교육법(DSHEA)>의 느슨한 검증 제도로 인한 근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중들이 전문 의료인들을 찾기보다는 직접 식물성 식이보충제에 대한 정보를 얻어 그것을 통해 본인의 건강을 돌보고자 하는 시대적 분위기와도 관계되어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옹호 담론’을 펼치는 식이보충제 제조업자 및 식물 약재 관계자들의 주장은 다소 여유로워 보였다. 소비자들이 ‘옹호 담론’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옹호론자들은 식물성 식이보충제들이 오랜 세월 아무런 문제없이 세계적으로 활용되어왔으며, ‘천연의’ 원료로 만들어졌다는 점만 강조하면 되었기 때문이다.

인삼을 비롯한 식물성 식이보충제들이 담론의 충돌 속에서도 식품 통제에 엄격한 미군의 식이보충제 매뉴얼에까지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특히 이러한 미국 내 식물성 식이보충제의 확산 과정 가운데 인삼의 입지는 확실해 보인다. 앞서 살펴본, 그리고 본문에는 언급되지 않은 수많은 식이보충제 논쟁을 다룬 언론 기사들 속에서 다양한 식물성 식이보충제의 종류가 언급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인삼이 빠진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⁷⁶⁾ 미군의 여러 식이보충제 매뉴얼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본문에서 살펴본 미군의 초창기 식이보충제 매뉴얼에서 여러 식물성 식이보충제 가운데 인삼에 대해 가장 자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은 인삼에 대한 그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의 식물성 식이보충제 시장의 확대 속에서 인삼에 대한 전망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같은 맥락에서 고려 인삼의 미국 시장 비중 확대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수 있는데, 미국 내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위험 담론’에 안전성에 대한 확신만 심어줄 수 있다면 충분히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으리라 여겨진다.

국내에서는 고려 인삼의 활용과 효능 검증이 오랜 세월 동안 충분히 이뤄졌기 때문에, 안전성의 측면에서는 이전의 여지가 없다. 국내에서는 인삼이 체질에 잘 맞는지 정도만이 논의의 대상이 되지, ‘인삼이 건강에 위협할 수 있다’는 식의 위험 담론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해외에 퍼져있는 “화기삼은 열을 내리고 고려 인삼은 승열작용을 한다”는 식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한 명

⁷⁴⁾ 이런 인삼 사용의 안전성 대해서는 2008년에 미 의학연구소에서 발간한 『군인들의 식이보충제 사용』에서도 동의하는 부분이다. Greenwood and Oria eds., Use of Dietary Supplements by Military Personnel, p. 130.

⁷⁵⁾ Deuster and Simmons eds., Dietary Supplements and Military Divers, p. 11.

⁷⁶⁾ 본문에 언급하지 않은 다음의 기사들 역시 다양한 식물성 식이보충제를 다루는 가운데 인삼은 공통적으로 포함하여 언급하고 있다. Carole Sugarman, “Magic Bullets; Pumped-Up Foods Promise to Make Us Happier and Healthier. We’ll See,” The Washington Post, 21. Oct. 1998; Allen J. Douma, “Evening. Health. Health Line. Letters,” Chicago Tribune, 15. Feb. 1999.

확한 반박과 함께,⁷⁾ 국내에 '식품'으로서 완전히 자리 잡고 있는 인삼에 대한 인식을 해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한다면 성장하는 식이보충제 시장에서 더 많은 활로를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필요하다면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식물성 식이보충제들과 인삼을 명확히 구별하여 인삼의 안전성에 대해 강조하는 전략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차 자료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69호, 2014. 5. 21., 일부개정).
- <Dietary Supplement Health and Education Act of 1994>, Public Law 103-417 (1994).
- Deuster, Patricia A. and Rita G. Simmons eds., *Dietary Supplements and Military Divers: A Synopsis for Undersea Medical Officers (Submarine Development Squadron 5, 2004)*.
- Douma, Allen J., "Evening. Health. Health Line. Letters," *Chicago Tribune*, 15. Feb. 1999.
- Grady, Denise, "Scientists Say Herbs Need More Regulation," *New York Times*, 07. Mar. 2000.
- Greenwood, M. R. C. and Maria Oria eds., *Use of Dietary Supplements by Military Personnel (Washington: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2008)*.
- Gugliotta, Guy, "Aiming Dietary Supplements at Kids; Children: Companies are targeting parents while pediatricians and officials worry about lack of regulation and testing," *Los Angeles Times*, 03. July. 2000.
- Hellmich, Nanci, "The Botanical Business for the Big Drug Firms, Market is Ripe for Expansion into Herbals," *USA TODAY*, 14. Oct. 1998.
- Lytle, Lisa, "Herbal supplements gaining popularity," *Austin American Statesman*, 12. June. 1998.
- Roan, Shari, "Food as Medicine 'Functional Foods' Fortified with Dietary Supplements," *The Spectator*, 29. Mar. 1999.
- Sugarman, Carole, "Magic Bullets; Pumped-Up Foods Promise to

Make Us Happier and Healthier. We'll See," *The Washington Post*, 21. Oct. 1998.

2차 자료

- 남기열, 양병욱, 신왕수, 박종대, 「고려인삼(Panax ginseng)과 미국삼(Panax quinquefolium)의 승열작용에 대한 비교 고찰」, 『생약학회지』 49 (한국생약학회, 2018).
- 박성훈, 「일본과 미국의 인삼시장 세분화 연구」, 『식품 유통 연구』 23 (한국식품유통학회, 2006).
- 설혜심, 「인삼 사냥꾼(Ginseng Hunter): 북미대륙의 채삼 관행과 채삼인의 이미지」, 『인문과학』 113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8).
- 설혜심, 「19세기 영국신문에 나타난 인삼(ginseng)」, 『영국연구』 34 (영국사학회, 2015).
- 설혜심, 「17-18세기 영미권의 인삼(Ginseng) 인식」, 『의사학』 25 (대한의사학회, 2016).
- 설혜심, 「서양의학에서의 인삼활용과 한계, 1660-1900: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의사학』 26 (대한의사학회, 2017).
- 성현제 최선미 윤유식, 「미국에서의 Botanical Products(한약) 품질관리에 관한 연구」,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13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 2000).
- 식품의약품안전청, 『미국 Dietary Supplement의 안전성 평가 체계』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
- 이기노, 「"고려인삼 복용해도 승열작용 안 나타나"」, 『한국농어민신문』 (2018. 11. 2.).
- 이동필 박훈, 「미국의 재배삼 수출실적, 1990~1994」, 『고려인삼학회지』 20 (고려인삼학회, 1996).
- 이동필, 「화기삼의 효능 주장과 미국삼의 발전과정에 대한 고찰」, 『고려인삼학회지』 30 (고려인삼학회, 2006).
- 이세정, 「건강기능식품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6).
- 정하명, 「미국의 건강기능식품법: 미국연방 식약청(FDA)의 규제현황을 중심으로」, 『법과 정책연구』 9 (한국법정책학회, 2009) 등을 참조.
- Staba, E. John., 김정연, 「미국의 인삼 재배」, 『생약학회지』 2 (생약학회, 1971a).
- Staba, E. John., 김정연, 「미국 인삼사 개요」, 『생약학회지』 2 (생약학회, 1971b).
- Dharmananda, Subhuti, "SAFETY ISSUES AFFECTING CHINESE HERBS: The Case of Ginseng," *Institute for Traditional Medicine*. (Available online: <http://www.itmonline.org/arts/ginseng.htm>).
- Dier, Joseph K., "S.O.S. From the FDA: A Cry for Help in the World of Unregulated Dietary Supplements," *Albany Law Review* 74 (2010).
- Gonsalves, Stephen, Trisha Stavinoha, Linda Hiote, Janelle Costa, George Dilly, Patricia A. Deuster, "Dietary Supplements in the Department of Defense: Possible Solutions to Optimizing Force Readiness," *Military Medicine*, 177 (2012).
- Heller, Ilene Ringel, "Functional Foods: Regulatory and Marketing Developments," *Food and Drug Law Journal*, 56 (2001).

⁷⁾ 고려인삼의 승열작용에 대한 반박은 국내 학자들을 통해 2000년대 초반부터 이뤄져왔으며, 최근에 한국생약학회에서 발표된 논문 「고려인삼(Panax ginseng)과 미국삼(Panax quinquefolium)의 승열작용에 대한 비교 고찰」은 그에 대한 전문적인 고찰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2018년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제12회 국제인삼심포지엄에서는 고려인삼연구 주관으로 한국과 베트남, 중국 3개국에서 실시된 '고려인삼의 수출국 대상 승열작용 및 안전성 임상 등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여 지금까지의 '고려인삼의 승열작용'이라는 인식이 완전히 잘못된 것임을 지적했다. 남기열, 양병욱, 신왕수, 박종대, 「고려인삼(Panax ginseng)과 미국삼(Panax quinquefolium)의 승열작용에 대한 비교 고찰」; 이기노, 「"고려인삼 복용해도 승열작용 안 나타나"」, 『한국농어민신문』 (2018. 11. 2.)를 참조.

Knapik, Joseph J., Krista G. Austin, Emily K. Farina, Harris R. Lieberman, "Dietary Supplement Use in a Large, Representative Sample of the U.S. Armed Forces," *Journal of the Academy of Nutrition and Dietetics* 118 (2018).

Mason, Marlys J., "Drugs or Dietary Supplements: FDA's Enforcement of DSHEA," *Journal of Public Policy & Marketing*, 17 (1998).

Mills, Simon, Kerry Bone, *The Essential Guide to Herbal Safety* (St. Louis: Churchill Livingstone, 2005).

국립국어원, "식이", "보충제" (URL: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검색일: 2018년 8월 30일)

Received: January 9, 2019

Revised: January 23, 2019

Accepted: January 25, 2019